새 교과서에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로, 성소수자는 삭제

교육부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도덕 교과서에 성평등 용어 자제
29일까지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수정되고, '성(性)소수자'는 삭제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목되는 부분은 논란이 됐던 '민주주의' 표기에 '자유'를 추가해 '자유민주주의'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도 변경돼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기술됐다.

교육부는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헌법 전문, 관련 법률 규정, 역대 교육과정 사례, 국민의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민참여소통채널과 공청회 등을 진행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교육부는 그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정 요구가 다수 접수됐고,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와의 혼동 우려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교육계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6·25 남침, 자유민주주의 명시 등의 요구는 국정 역사 교과서 논란의 재현이라는 비판 여론에도 정책 연구진에 수정·보완을 요구했다"며 "교육부는 '국민 의견'을 핑계 삼아 정권의 의도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행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란이 일었던 여러 가치 부분과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용어 명시는 헌법 취지를 존중한 것이고, 성평등 용어 제외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국민 인식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성소수자' 표현 삭제도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시안에 따르면 '성소수자'라고 기술돼 있지만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를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수정했다. 도덕 교과서에는 '성평등'에 대한 용어를 자제하고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를 이해' 등으로 표현했으며, 보건 교육과정에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변경됐다.

전교조는 "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표현한 것은 차별의 범위를 넓히긴 했지만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교총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용어이자 사회적으로 합의된 '양성평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강조된 안전교육도 강화됐다. 다중밀집환경에서의 대처 포함, 초등 저학년 단계의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골자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초등 저학년 과정에 갑작스럽게 심폐소생술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행정예고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교육부는 해당 기간 동안에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2022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본은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확진 수험생' 별도시험장 22곳… 당일 증상땐 '분리시험실'

서울시교육청 '2023 수능 시행계획'
수험생 유형따라 시험장 총 248개
11일부터 확진땐 별도시험장 배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인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강북종로학원에서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특별방역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7일 서울에서 10만6765명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도 병원이 아닌 별도시험장에 시험을 치른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2023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확진자 등 수험생 유형에 따른 248개 시험장을 마련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확진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은 총 22곳이 마련됐다. 22곳에 각각 8개실이 설치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측정한 결과, 8명씩 들어가게 될 경우 1408석, 12명씩은 2112석 정도가 확보된다.

별도시험장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 당국의 격리 통지를 받은 수험생, 병원시험장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 확진 수험생을 위해 마련됐다. 방역 지침에 따라 17일까지 격리되는 11일 확진 수험생부터 별도시험장으로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확진 시 각 시도 교육청으로 직접 연락하면 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시험장에는 '분리시험실'이 따로 마련된다. 수능 당일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의 경우 분리시험실에 배치돼 시험을 치르게 된다. 분리시험실은 총 452실이 준비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병원에서 시험을 본 중증 확진자는 1명, 생활치료센터에서는 38명,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 자가격리자는 40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주 서울 학생 확진자 수 508명으로 이를 고려했을 때, 많게 추산해도 2000명 이내 확진 수험생을 예상했다. 또한 교육부의 예측에 따라 일일 단위 확진자 최대 15만명을 기준으로 준비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넘길 경우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대치를 넘어설 경우 교실에 들어가는 학생 수 조절, 시험장 내 유효실 사용이나 복도관리자까지 투입되는 등의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 수험생의 경우 시험장까지 도보, 개인차량 등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의 이용은 불가하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확진 수험생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총 71건으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26) ▲종료령 후 답안 작성(23) 등이 높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등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시험 중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교과서, 참고서 등도 시험 중 서랍 속에 보관하는 등 휴대에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대기시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선택 과목 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하은 기자

상명대 강상욱 교수

심강 논문상 수상자 선정

상명대학교는 강상욱 융합공과대학 화학에너지공학전공 교수(사진)가 2022년 추계 한국화학공학회에서 수여하는 심강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화학공학회는 심강논문상 수상자로 강상욱 교수를 선정했다. 화학공학회는 젊은 화학공학도의 연구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만 45세 이하'인 학회 정회원 중 우수 연구자를 발굴해 '심강논문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강 교수의 경우 화학공학회지(영문지)에 발표한 논문 'Effective pore control and enhanced strength of cellulose acetate using polyethylene glycol for improved battery stability'의 학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상위 3% 이내 저널인 Chemical Engineering Journal(피인용지수: 17.744)에 최근 5년간 8편을 교신저자로 게재했으며, 상위 10% 내 저널인 Journal of Membrane Science(피인용지수: 10.53)에는 5년간 3편을 교신저자로 게재하는 등 학술적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심강논문상 수상자가 됐다.

강상욱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분야인 배터리 분야를 주로 연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세퍼레이터 소재에 집중하고 있다. 배터리 분리기(separator)로서 기존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분리막의 경우 낮은 열적 안정성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강 교수는 기존 상분리법 및 열유도상분리법의 약점을 보완하고, 최근 개발된 금속기반 다공성 소재 제조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세퍼레이터 제조공정을 제시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신하은 기자

배터리 경쟁력 강화 노력… 연세대 김광범 교수 '국무총리 표창'

그래핀 상용화 기술한계 극복 기여

연세대학교는 김광범 신소재공학과 교수(사진)가 지난 1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전지산업협회 주관 '제2회 배터리 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김광범 연세대 교수는 슈퍼커패시터 및 리튬이차전지용 그래핀 전극소재 기술 개발을 통해 그래핀의 상용화 기술 한계를 극복해 산업체 기술력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 교수는 슈퍼커패시터 분야의 전문가로, 1991년 연세대에 부임해 슈퍼커패시터용 그래핀 전극 소재 분야에서 국제적 연구를 선도하며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영향력 있는 연구로 주목받고 있다. '슈퍼커패시터'는 단시간에 전기 에너지를 고속 충전하고, 방전 시 순간적 혹은 연속적으로 큰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고출력 장수명 전기에너지 저장기기이다.

김 교수는 '나노메쉬 그래핀'과 '진구형 그래핀 조립'이라는 차별화된 그래핀 소재 기술을 개발해 에너지저장장치용 그래핀 분야 대한민국 산업체의 기술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2013년 슈퍼커패시터 기술 연구 개발 공헌으로 에너지산업유공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을 받다. /신하은 기자